

스크린 넘어 전시장으로... '무빙 이미지', 작품이 되다

'ACC 필름앤비디오-아시아의 장치들'...9월27일까지

아시아 역사·사회적 사건 조명하는 실험영화 64점 관습터콘 구조·VR 체험 등 입체적 공간 연출 '눈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아시아 실험영화 연구 성과를 집약한 대규모 전시를 선보인다.

영화와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빙 이미지'를 통해 아시아 각 지역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그 속에서 작동해온 감각의 구조를 한 자리에서 풀어낸다.

오는 9월27일까지 복합전시2관에서 열리는 'ACC 필름앤비디오-아시아의 장치들' 이야기다.

아시아 실험영화 감독 및 영상작가 31명이 참여해 총 64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으로, ACC 개관 이후 최대 규모의 영화 전시다.

실험영화는 1970-80년대 아시아 각 지역의 정치·사회적 억압과 검열의 환경 속에서 제도 바깥의 감각과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자리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도전과 실험의 정신이 전시 공간으로 확장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아시아 각 지역의 역사적 사건들이 영화적 언어로 재구성된 작업들을 통해 현실의 기록이 예술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미디어 게이트'가 관람객을 맞는다. 한옥회 감독 작품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된 트레일러 영상이 상영되며, 전시 전체의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전달한다.

도입부에 배치된 이토 다카시의 작품 세 편에

서는 이미지와 장면의 배열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험영화 특유의 형식을 확인해볼 수 있다.

전시 공간은 감시탑, 즉 '관습터콘'을 연상시키는 원형 구조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중앙 원형을 중심으로 시선이 교차하는 동선 속에서 관람객은 감시·통제의 장치를 떠올리게 되는 공간을 통과하게 된다.

바닥에는 한국 실험영화 연대표가 설치돼 1970-80년대 검열과 삭제 속에서 형성된 영화사의 흐름을 둘러보며 걸을 수 있다.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은 유사한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영화 검열과 삭제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실험영화는 도전과 저항의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관객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지금의 영상예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보를 형성한다.

전시는 3개 층으로 구성됐다.

1층은 아시아 여성 실험영화 작가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출발한다. 차학경, 응우옌 쩐 티 등의 작업을 통해 역사 속에서 지워지거나 주변화됐던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전면에 드러낸다.

특히 한옥회 감독의 경우, 1975년 작품 '세 개의 거울'을 포함한 필름 6편이 복원돼 처음 공개된다.

한옥회 아카이브에서는 한국 최초 여성 실험영화 그룹 '카이두 클럽'의 활동 기록과 함께 독일 유학 이후 작업까지 이어지는 작가의 궤적을



전시장 3층에서 내려다본 '아시아의 장치들' 전경

확인할 수 있다.

전시장 한편에는 봉준호 감독의 초기 작품 '백색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대학 시절 영화 동아리 '노란문'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작은 방 형태의 공간 안에서 당시 작업 환경을 연상하도록 구성했다.

대만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룬 '여공들의 기숙사' 설치 공간에서는 실제 침대 구조 안에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해 노동과 삶의 조건을 밀도 있게 체험하도록 했다.

일본 작가 토모토시는 편의점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활용한 영상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관람객이 익숙한 소비 공간 안을 이동하듯 구성된 화면을 따라가며, 도시의 노동과 생활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마주하게 한다.

2층에서는 여성 서사를 넘어 아시아 전반의

역사와 투쟁, 사회적 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이어진다. 각 작품은 실제 기록 영상과 음향, 화면 편집을 결합해 사건의 장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VR을 활용해 감독 독방 내부를 체험하는 작업도 있다. 관람객은 좁은 공간 안에서 시선과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김경목 감독이 자신의 수감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영화에서 다루지 않았던 구금 공간과 시선의 문제를 이 작업으로 확장했다. 스크린 속 장면을 실제 공간처럼 마주하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2층 한편에는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포스터 형식으로 풀어낸 '포스터 거리'가 조성됐다. 상업영화와 달리 홍보 매체가 제한적이었던 실험영화를 시각적 이미지로 재해석한 공간으로, 작품의 개념과 미학을 또 다른 방식으로 드러낸다.



대만 영화 '여공들의 기숙사' 속 공간을 재현한 설치 작업.



일본 작가 토모토시 작가의 'CU에서 CU를 사기'

3층에서는 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 공간이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타워크레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한 영상과 1980년대 한국 사회의 풍경을 담은 작품이 교차 상영되며,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과 여전히 진행 중인 역사적 시간의 층위를 돌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전시장에는 관람 편의를 위한 장치가 구비됐다. 자극적인 영상과 사운드에 대비해 심부 압박 방식의 '뉴노멀 블랭킷'을 비치해 안정감을 제공하며, 점자책과 쉬운 글 해설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글·사진=최명진 기자

'4월의 아리아'...회화로 풀어낸 봄의 선율

황토회 작가 4인전...오는 30일까지 나주 여천갤러리

봄의 기운이 스며드는 4월, 자연의 색과 감정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풀어낸 전시가 나주에 열린다.

황토회 작가들이 참여하는 4인전 '4월의 아리아'가 4월1일부터 30일까지 나주 여천갤러리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 전시는 황토회 회장 고희자를 비롯해 원로 작가 이진표, 신동연, 정은기 등 4명이 참여해 각자의 작업 세계를 펼쳐 보인다.

전시는 나주 문화로에 위치한 최선정형외과 3층에 조성된 여천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출품작은 작가별 10점씩 총 40여점으로 유화

와 수채, 콘데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회화 작품이 중심을 이룬다. 서로 다른 재료와 표현 방식이 어우러지며, 각 작가가 바라본 자연과 감정의 결이 다양한 층위로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재현에 머무르기보다 감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회화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수채화의 물성과 유화의 색채, 선의 표현이 어우러지며, 빛과 장소, 대상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이 저마다 다른 시각 언어로 드러난다.

고희자 회장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네 가지 빛깔로 피어난 봄의 하모니를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정은기작 '잠미축제'

ACC재단, '아시아의 장치들' 연계 문화상품 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최근 'ACC 필름앤비디오-아시아의 장치들' 전시 연계 문화상품 9종 44개 품목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전시에 참여한 작가와 패션·디자인 브랜드가 협업해 작품의 주요 장면과 의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 경험을 확장하는 매개로 기획돼 관람 이후에도 작품의 여운을 일상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진)

특히 '플라스틱 프로덕트'(Plastic Product)와 협업한 한정판 티셔츠는 한국 최초의 여성 실험영화 집단 '카이두 클럽'을 이끈 한옥회 감독의 작업 모습을 그래픽으로 담아 소장 가치를 더했다.



영화 문화상품 전시 문스튜디오의 '판짓의 세상'과 함께 개발한 금속 배지는 16mm 카메라와 슬라이드 등 영화적 상징을 정교하게 표현했다.

이와 함께 그림엽서, 필름 틀 열쇠고리, 필름 책갈피 등 실험영화의 질감을 반영한 상품도 마련됐다. 디자이너 19팀이 참여한 독립 기획 전시 '시네마토그래피로서의 포스터' 19종 역시 상품 형태로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노인이 있는 곳이 곧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중 62%가 고령 보행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서도
어르신이 보인다면 각별히 주의하고 배려해주세요